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 수집 목적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지역 사회 정착 지원 시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통계청은 인구 총조사 범주의 하나인 외국인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주가 달라 통계량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출입국자 통계는 모든 외국인의 입출국 통계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출입국자 수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는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체류 외국인 통계가 가장 많고, 외국 국적 뿐만 아

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현황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의 외국인이 가장 적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인 인종(민족)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주민에 따라 통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외국인 주민은 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1%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222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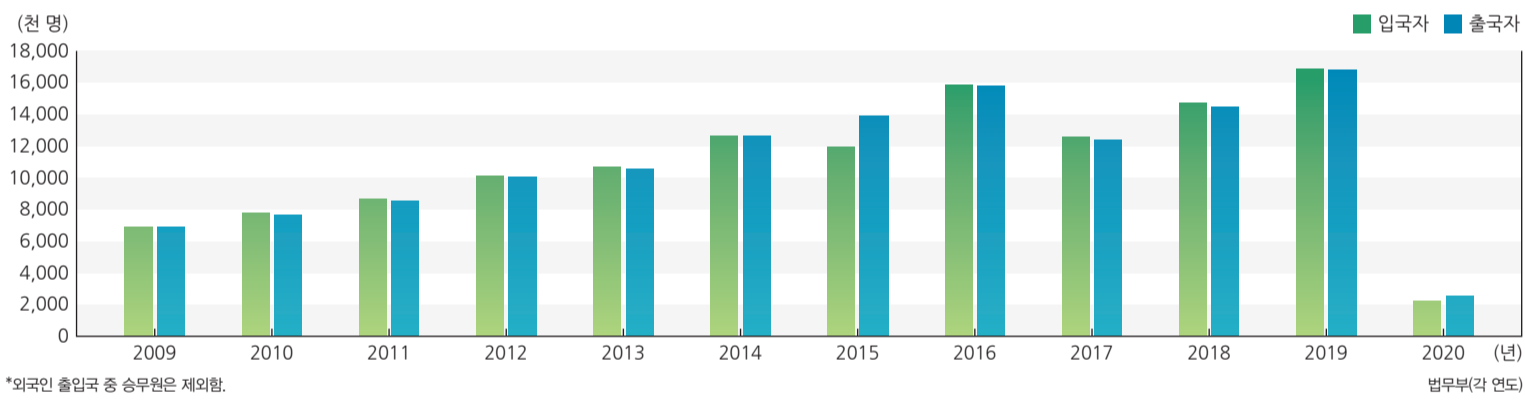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중 80.2%인 178만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고, 8.4%인 19만 명은 혼인 및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11.4%인 25만 명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자녀이다. 이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남성이, 결혼 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많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도 여성이 많은데 이는 결혼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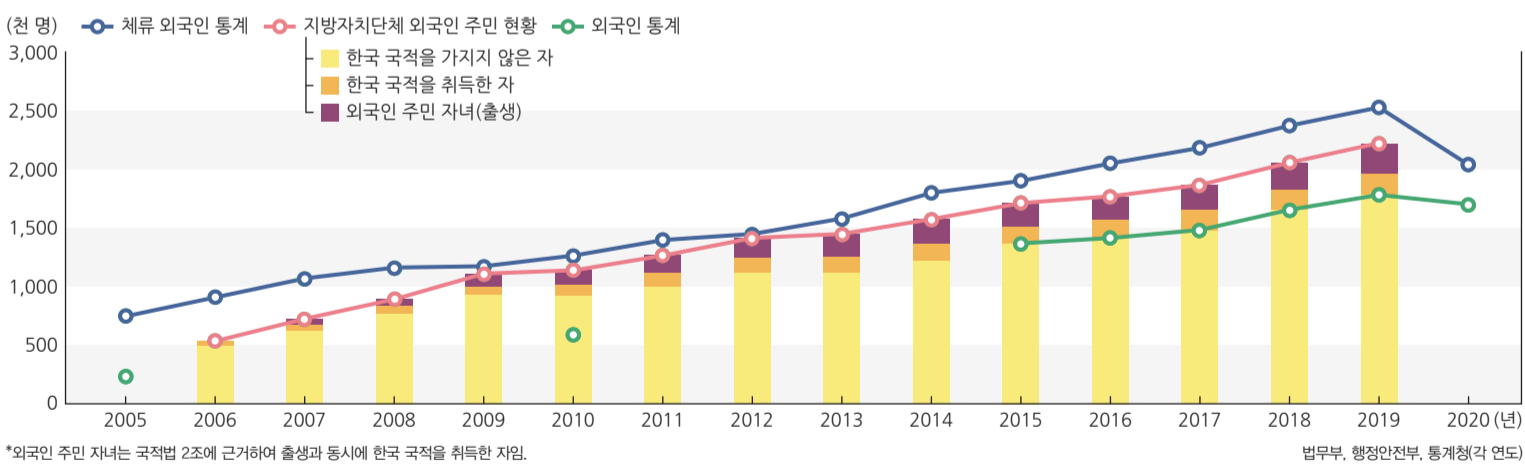
한편, 가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구는 2020년 현재 54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이며, 내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는 37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에 이른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2010년 인구 총조사까지는 다문화가구를 외국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나, 2015년 이후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정의하여 외국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를 분리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9%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구는 특수한 가족 형태가 아닌 우리나라 내 보편적 가족 형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은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로 구분되며, 한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주민은 95% 정도 증가하여 총 222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은 각각 80.2%, 8.4%, 1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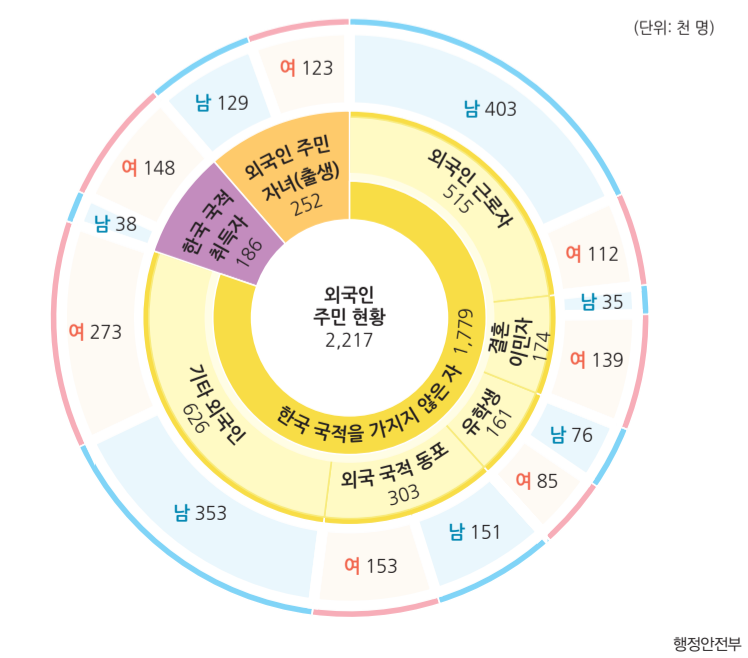
## 외국인 출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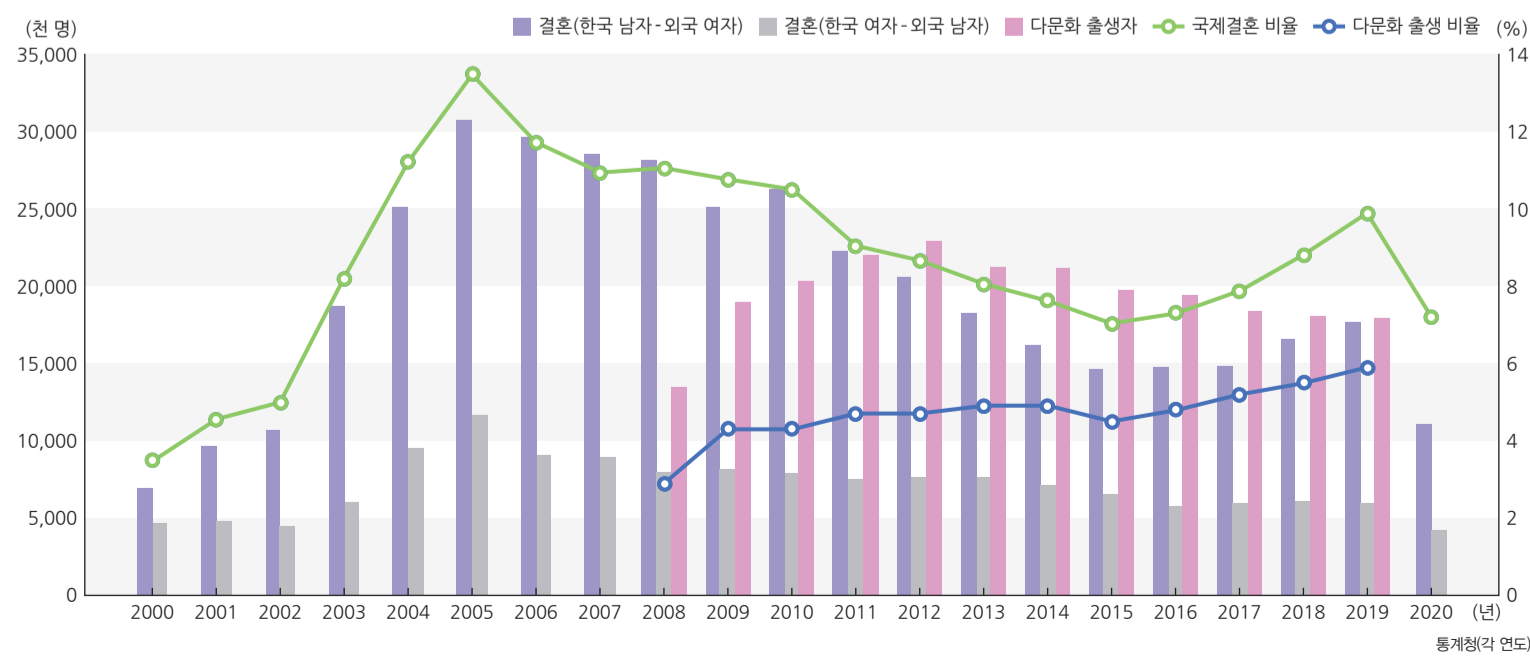
## 기관별 외국인 주민 현황



## 국적 취득 여부별 성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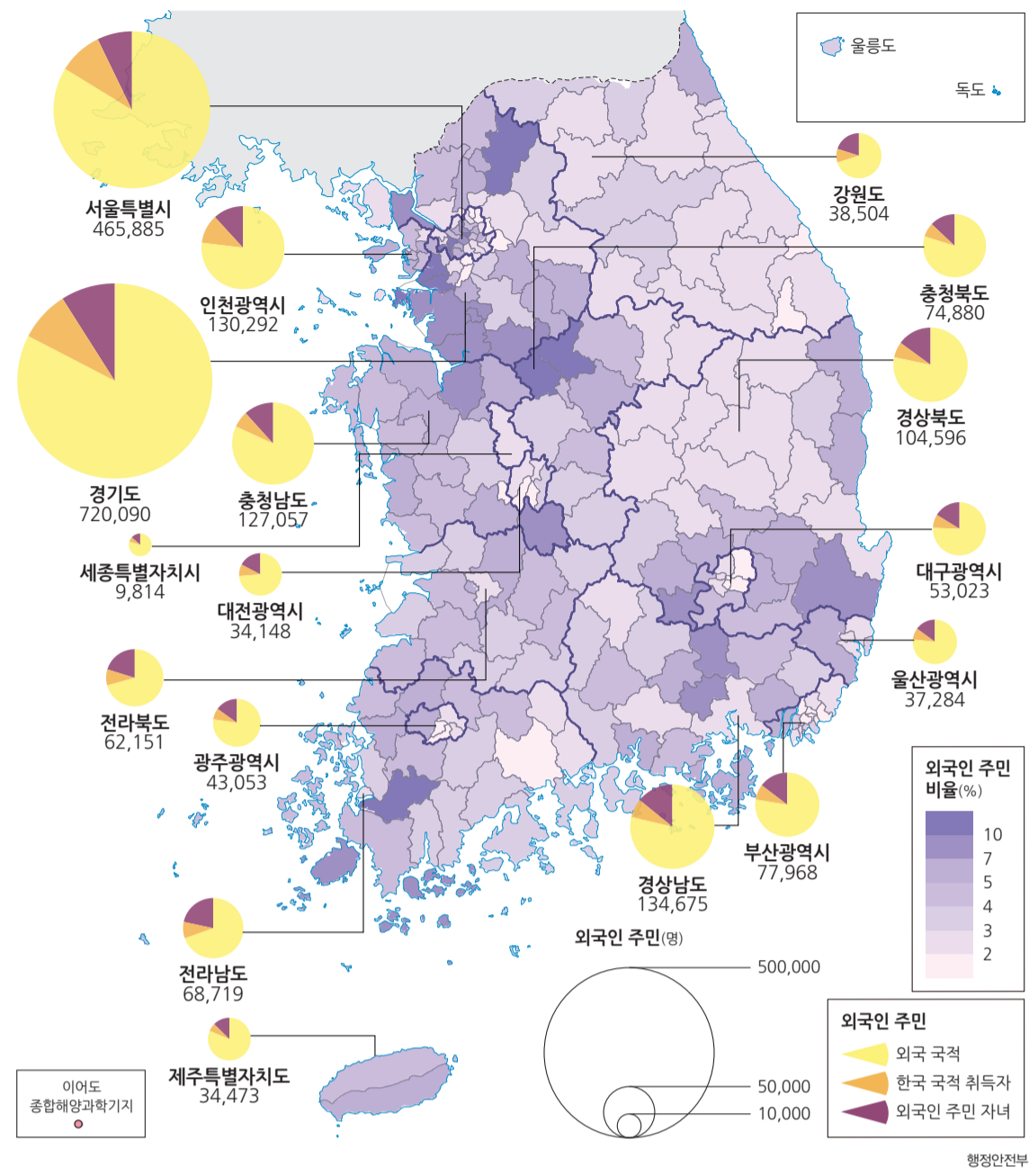


## 국제결혼 및 다문화 출생자 수



## 외국인 주민

### 외국인 주민 비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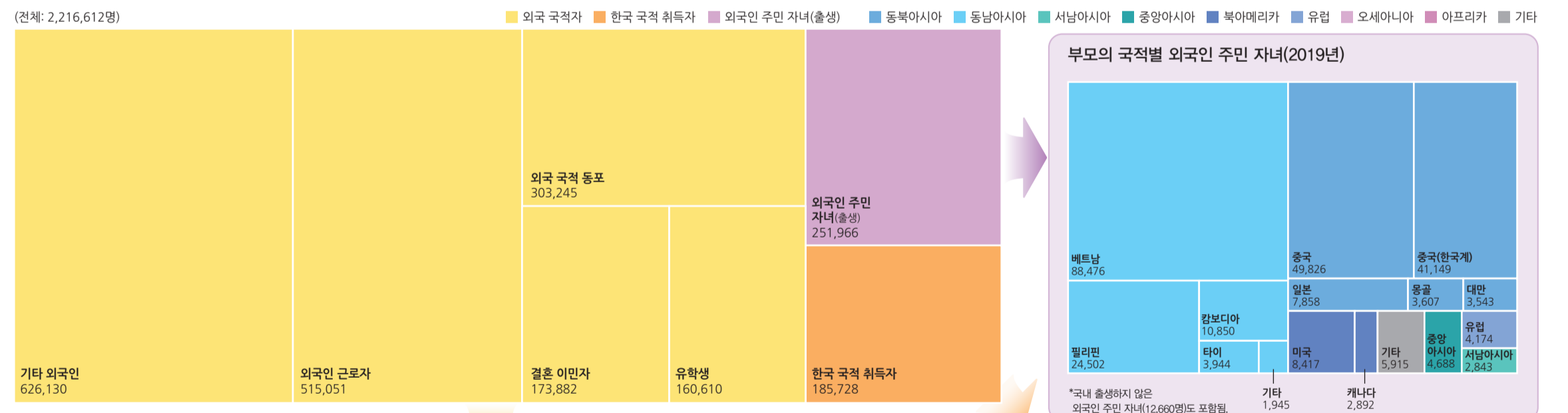
### 시·도별 외국인 주민(2010년, 2019년)

시·도	2010년			2019년			2010-2019년 변화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	외국인 주민 증가	외국인 주민 증가율			
전국	1,139.3	2.3	920.9	96.5	121.9	2,216.6	4.3	1,778.9	185.7	252.0	1,077	94.6
서울	336.2	3.3	283.3	33.9	19.0	465.9	4.8	390.2	42.2	33.5	130	38.6
부산	41.4	1.2	32.8	2.9	5.7	78.0	2.3	60.5	6.0	11.5	37	88.5
대구	26.0	1.0	20.3	1.8	3.9	53.0	2.2	40.1	4.3	8.6	27	103.9
인천	63.6	2.3	49.7	6.1	7.8	130.3	4.4	100.2	14.7	15.5	67	104.9
광주	16.6	1.2	12.7	1.2	2.8	43.1	2.9	33.3	3.3	6.5	26	158.9
대전	19.7	1.3	15.6	1.3	2.9	34.1	2.3	25.1	3.1	5.9	14	73.3
울산	19.4	1.7	15.1	1.4	2.8	37.3	3.3	28.6	3.1	5.5	18	92.6
세종	4.3	2.8	3.2	0.3	0.7	9.8	2.9	7.8	0.7	1.3	6	128.1
경기	337.8	2.9	279.0	28.9	30.0	720.1	5.4	594.8	60.4	64.9	382	113.2
강원	19.0	1.3	13.4	1.8	3.9	38.5	2.5	27.0	3.8	7.7	19	102.2
충북	30.1	2.0	23.2	2.2	4.7	74.9	4.6	59.8	5.4	9.7	45	148.5
충남	48.9	2.4	38.4	3.5	7.0	127.1	5.8	104.0	8.2	14.8	78	160.0
전북	28.5	1.5	20.5	2.1	5.8	62.2	3.4	44.0	5.6	12.6	34	118.5
전남	31.3	1.6	21.5	2.4	7.5	68.7	3.8	47.8	6.0	14.9	37	119.5
경북	46.7	1.7	36.0	2.9	7.7	104.6	3.9	81.8	7.1	15.6	58	124.2
경남	66.8	2.1	53.9	3.6	9.3	134.7	4.0	105.9	9.7	19.1	68	101.6
제주	7.3	1.3	5.5	0.6	1.3	34.5	5.2	28.0	2.1	4.3	27	3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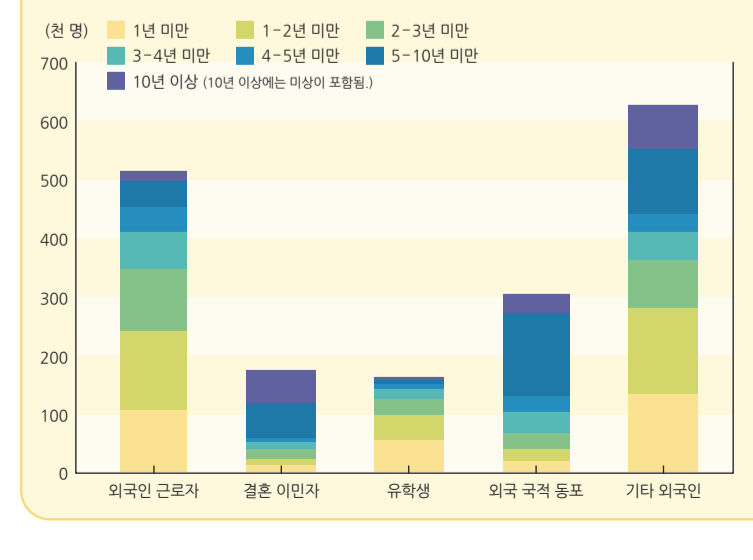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은 2019년 기준 수도권에 132만 명이 거주하여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분포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 인천 등이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충남, 광주, 충북 등이다.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충남, 경기, 제주가 5% 이상으로 높다. 특히 충남과 제주 지역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3%p 이상 증가하였다. 시·군·구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시·군·구가 10개에 달하는데, 충북 음성군(15.0%), 서울 영등포구(14.1%), 경기도 포천시(13.2%) 등 수도권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한국

권 및 수도권 인접 지역이 높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노동력이 제조업에만 머물지 않고,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경우 3년 미만 체류자가 많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체류자가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타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류자가 많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취득 이전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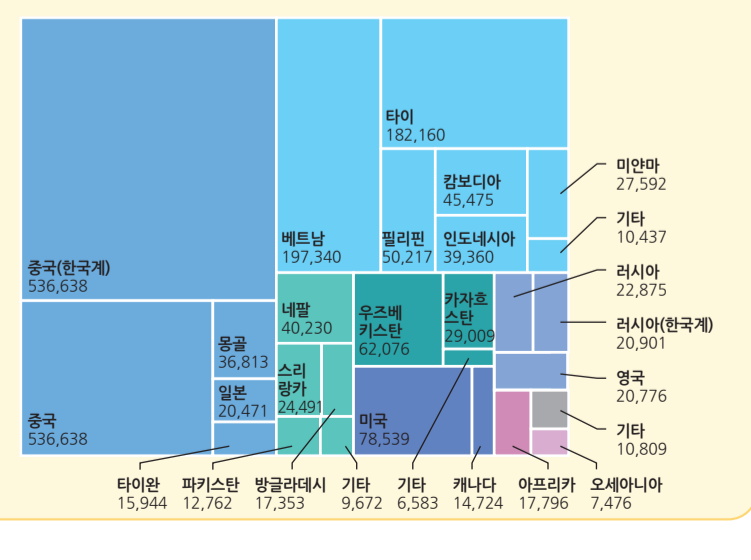
### 외국 국적자의 유형별 체류 기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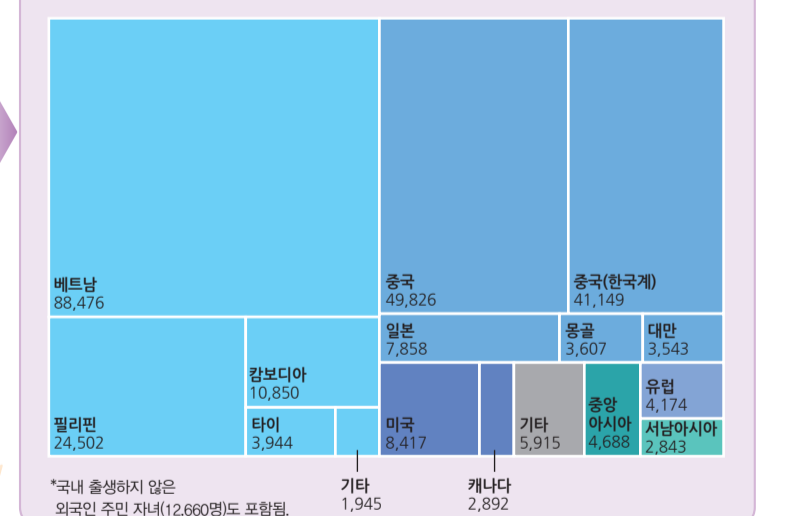
### 외국 국적자의 유형별 체류 기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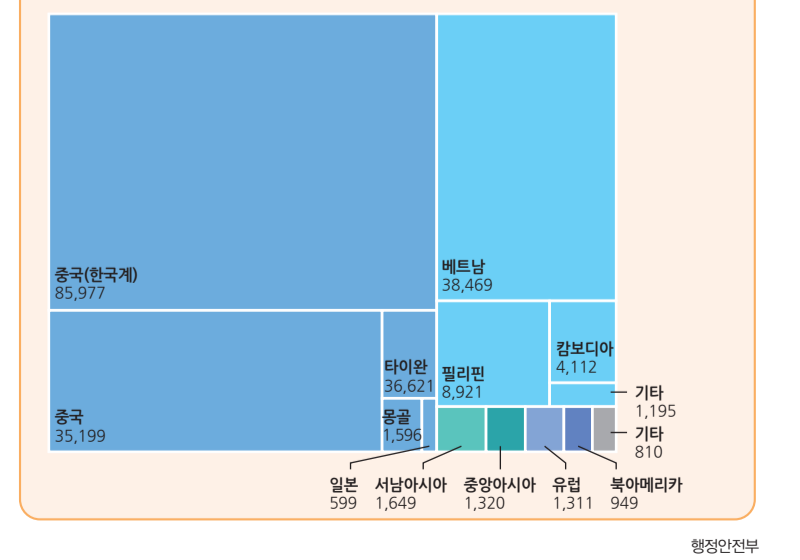
### 외국 국적자의 국적별 분포(2019년)



### 부모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 자녀(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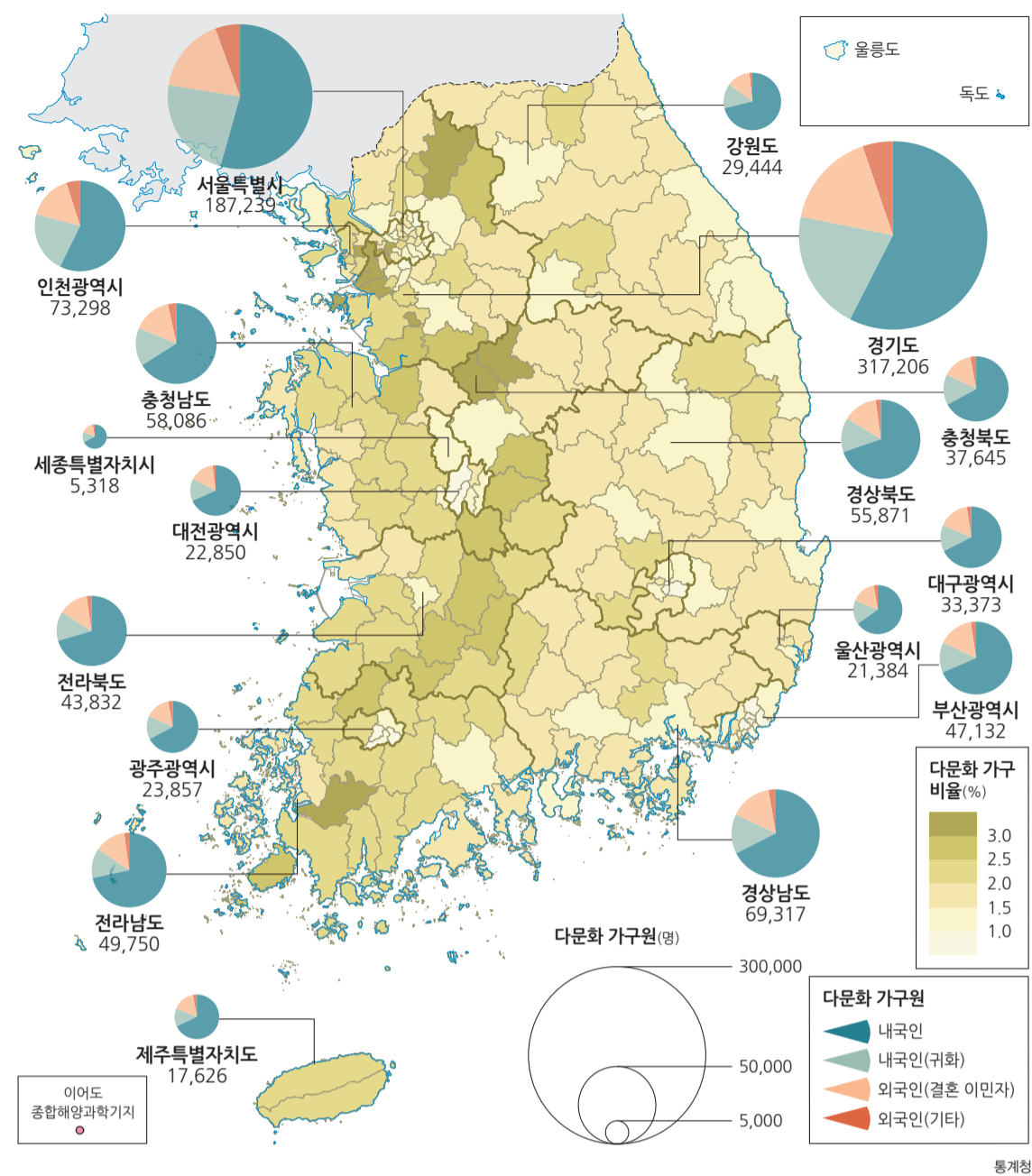


### 한국 국적 취득자의 이전 국적(2019년)



## 다문화 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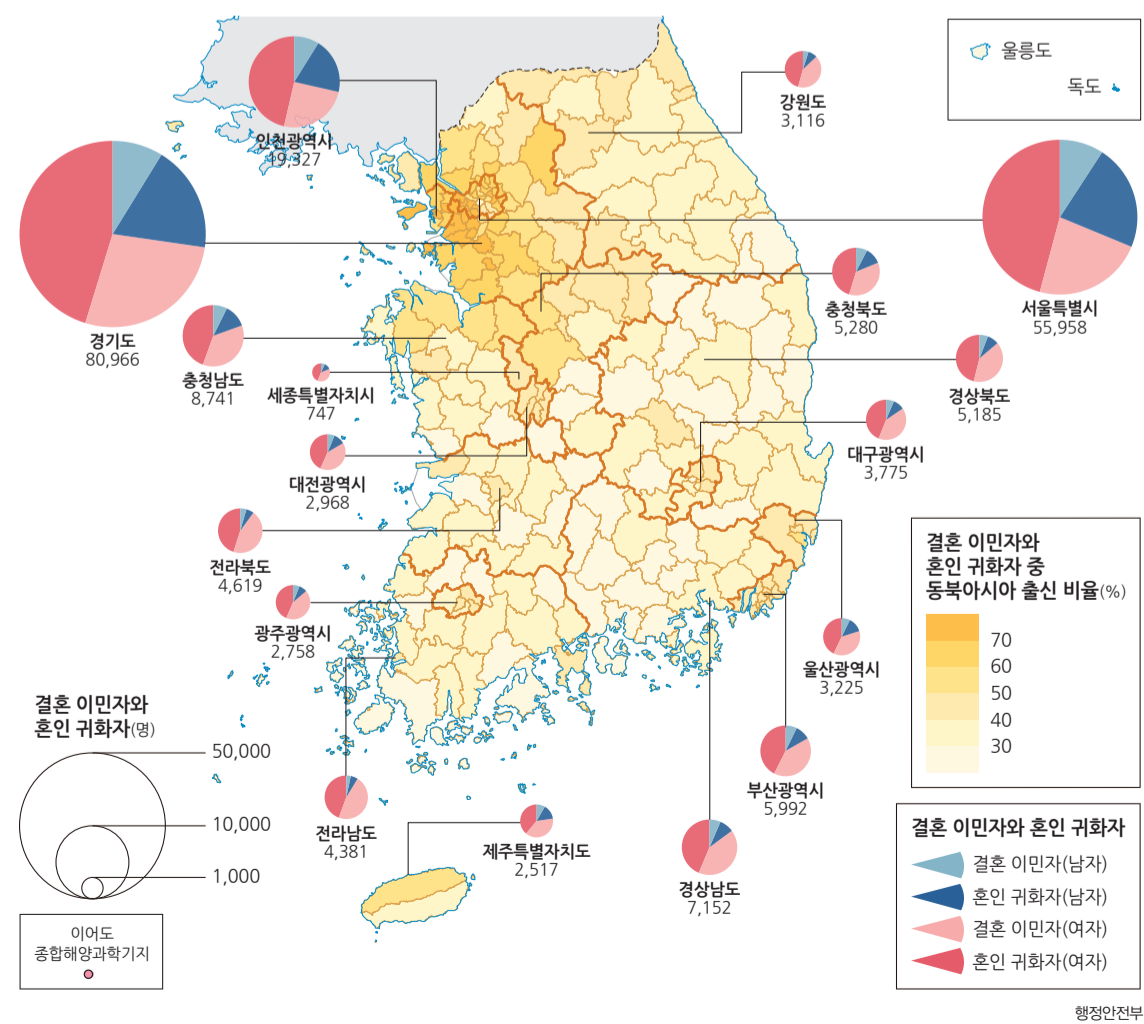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비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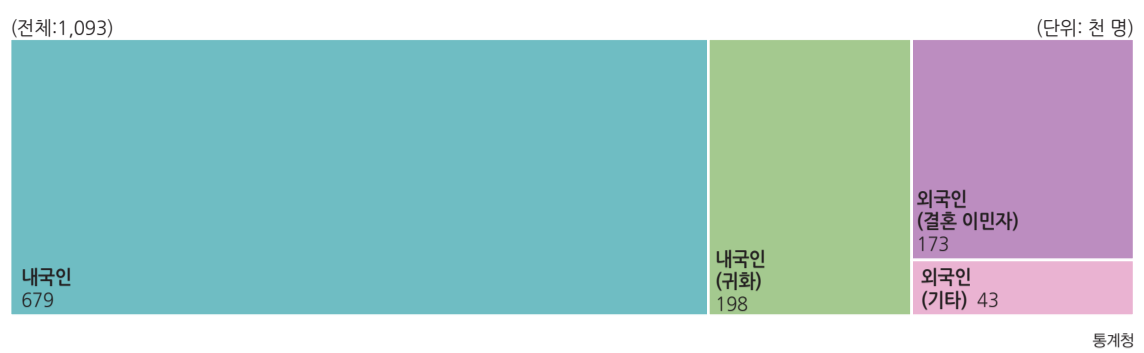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외국인 가구와는 다른 개념이며, 내국인 가구 중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2020년 현재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의 1.8%인 37만 가구이며, 2015년 대비 2020년 다문화 가구의 증가율(22.9%)은 일반 가구 증가율(9.5%)의 2.4배에 이른다. 일반 가구의 수도권 비율은 48.9%인데 반해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비율은 56%에 달해 다문화 가구 역시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5년 동안 15% 이상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제주의 경우 37.5%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대비 2020년 동부나 읍부의 다문화 가구 증가율에 비해 면부의 증가율이 낮았는데 이것은 일반 가구에서와 동일한 현상이며, 면부의 다문화 가구원은 2019년 137,055명에서 2020년 136,508명으로 줄어들어 다문화 가구의 도시로의 집중을 반증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 비율 3% 이상인 지역은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의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부천시, 포천시, 인천의 부평구, 충북의 음성군, 진천군, 전남의 영암군 등이다. 수도권, 충청 지역의 외국인인 많이 거주하는 지역 역시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으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전통적인 농촌 지역 역시 국제결혼의 영향으로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다. 다문화 가구원은 109만 명이며, 이중 내국인은 68만 명(출생자 포함), 내국인 귀화자가 20만 명,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17만 명, 기타 외국인이 4만 명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다문화 가구원 중 기타 외국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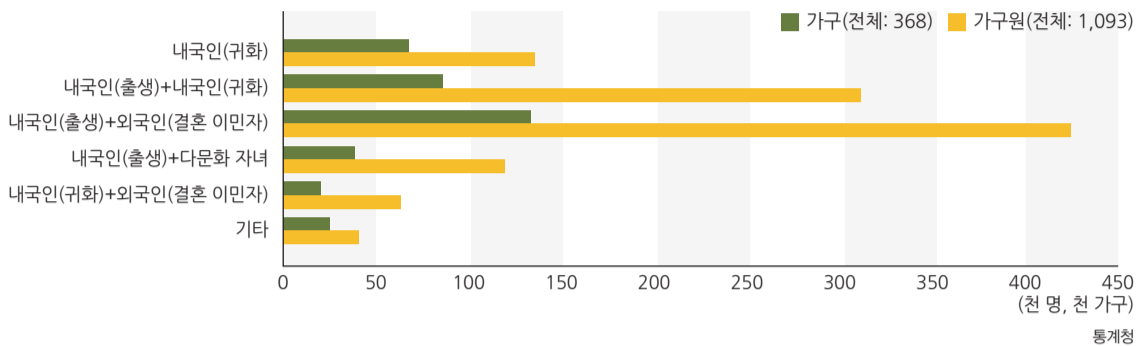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2020년)



다문화 가구원의 구성(2020년)



다문화 가구 유형(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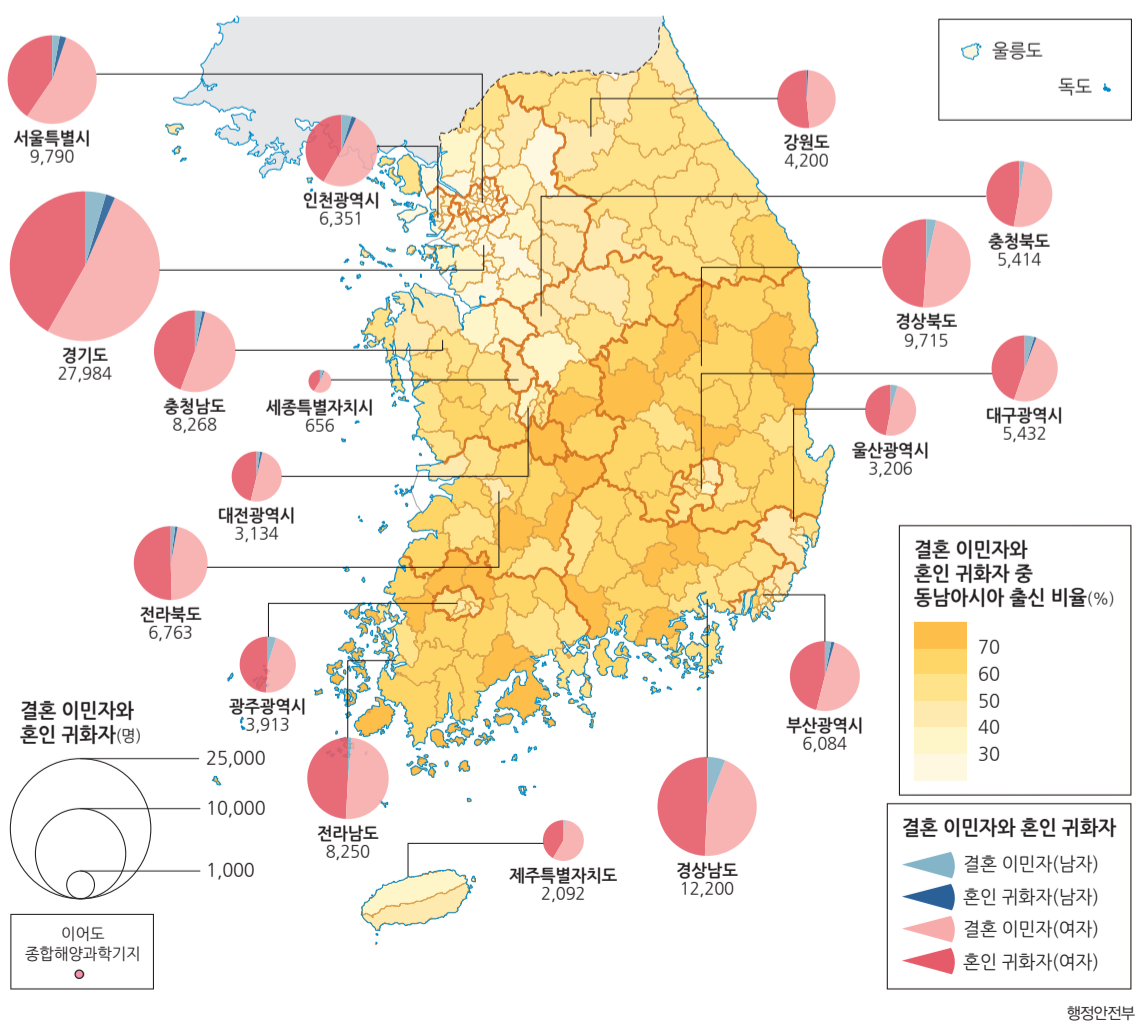
시·도별 다문화 가구(2015년, 2020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일반 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 비율		2015-2020년 증가율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일반 가구	다문화 가구
전국	19,111	20,927	299	368	1.6	1.8	9.5	22.9
읍부	1,696	2,022	33	45	1.9	2.2	19.2	38.1
면부	1,928	2,008	37	39	1.9	2.0	4.2	5.6
동부	15,488	16,897	229	284	1.5	1.7	9.1	23.6
서울	3,784	3,982	64	70	1.7	1.8	5.2	9.0
부산	1,336	1,405	13	15	1.0	1.1	5.2	18.2
대구	929	986	9	11	0.9	1.1	6.2	27.6
인천	1,045	1,147	18	25	1.8	2.2	9.7	38.4
광주	567	599	6	8	1.1	1.3	5.7	25.2
대전	583	631	6	7	1.0	1.2	8.4	21.1
울산	423	444	6	7	1.4	1.6	4.9	16.5
세종	75	139	1	2	1.2	1.2	84.9	80.2
경기	4,385	5,098	84	111	1.9	2.2	16.3	31.2
강원	606	661	7	9	1.2	1.4	9.1	22.3
충북	602	679	9	12	1.6	1.8	12.8	28.4
충남	796	892	15	19	1.8	2.1	12.1	25.8
전북	717	756	11	13	1.6	1.7	5.3	17.0
전남	721	762	13	15	1.8	1.9	5.7	14.7
경북	1,063	1,132	14	17	1.3	1.5	6.5	20.8
경남	1,258	1,350	18	22	1.4	1.6	7.3	20.9
제주	220	263	4	5	1.8	2.1	19.4	37.5

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문화 가구의 구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출생 포함)과 외국인 결혼 이민자 또는 내국인(출생 포함)과 내국인(귀화)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다문화 가구의 59%인 22만 가구에 이른다.

다문화 가구를 이루는 주된 원인은 혼인이다.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주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 중 동남아시아 출신 비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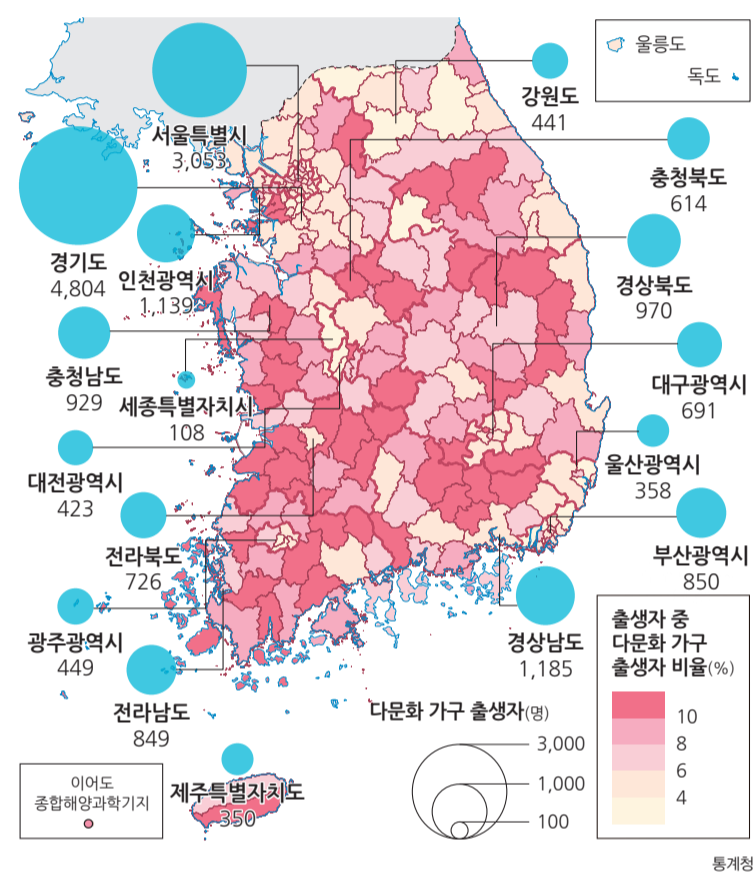


## 다문화 가구 인구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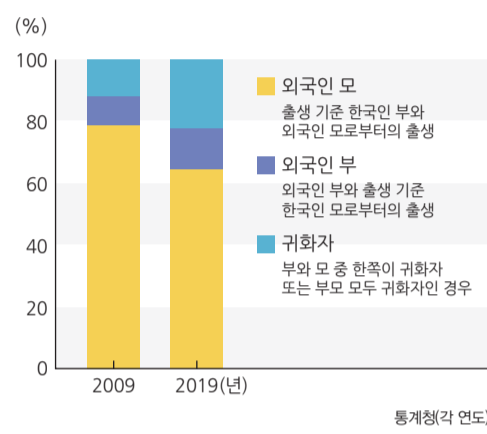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의 인구 동태

연도	전체				다문화 가구				전체 대비 다문화 가구 비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08년	465.9	246.1	327.7	116.5	13.4	1.0	36.6	12.4	2.9	0.4	11.2	10.7
2009년	444.8	246.9	309.8	124.0	19.0	1.3	33.9	13.7	4.3	0.5	10.9	11
2010년	470.2	255.4	326.1	116.9	20.3	1.5	35.1	14.3	4.3	0.6	10.8	12.3
2011년	471.3	257.4	329.1	114.3	22.0	1.6	30.7	14.5	4.7	0.6	9.3	12.6
2012년	484.6	267.2	327.1	114.3	22.9	1.6	29.2	13.7	4.7	0.6	8.9	12
2013년	436.5	266.3	322.8	115.3	21.3	1.6	26.9	13.5	4.9	0.6	8.3	11.7
2014년	435.4	267.7	305.5	115.5	21.2	1.6	24.4	12.9	4.9	0.6	8	11.2
2015년	438.4	275.9	302.8	109.2	19.7	1.7	22.5	11.3	4.5	0.6	7.4	10.3
2016년	406.2	280.8	281.6	107.3	19.4	1.9	21.7	10.6	4.8	0.7	7.7	9.9
2017년	357.8	285.5	264.5	106.0	18.4	2.0	21.9	10.3	5.2	0.7	8.3	9.7
2018년	326.8	298.8	257.6	108.7	18.1	2.2	23.8	10.3	5.5	0.7	9.2	9.4
2019년	302.7	295.1	239.2	110.8	17.9	2.6	24.7	9.9	5.9	0.9	10.3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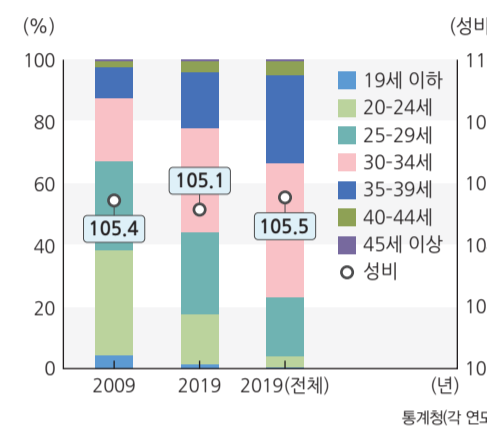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출생(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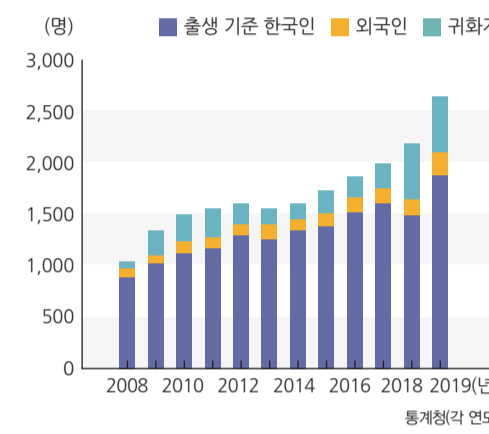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출생자의 부모(2009년, 2019년)



다문화 가구 모의 연령별 출생(2009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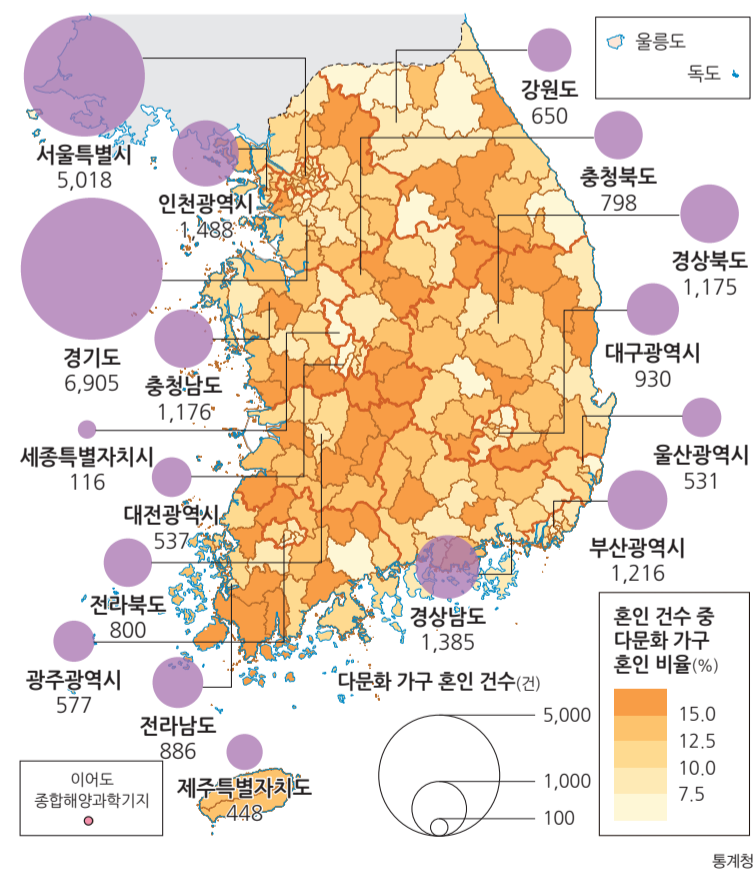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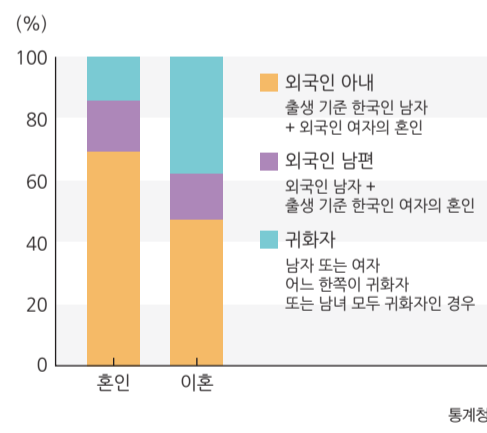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의 출생은 유형별로 외국인 모, 외국인 부, 귀화자로 나뉘어 살릴 수 있다. 2009년 대비 2019년 귀화자 부모의 출생 유형이 증가한 것은 결혼 이민자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귀화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母)의 연령별 출생자를 보면 다문화 가구의 모의 연령이 2009년에는 20-24세가 가장 많았지만 2019년에는 30-34세가 가장 많이 모의 연령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전국과 비교할 때 다문화 가구의 모의 출생 연령이 낮을 것 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가구의 출생 성비는 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이 10%를 넘는 시·군·구는 55개로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경기도의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의 금천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다문화 출생아가 많았으며,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북이었다(8.1%). 다문화 사망의 경우 다문화 가구 내 출생 기준 한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중 귀화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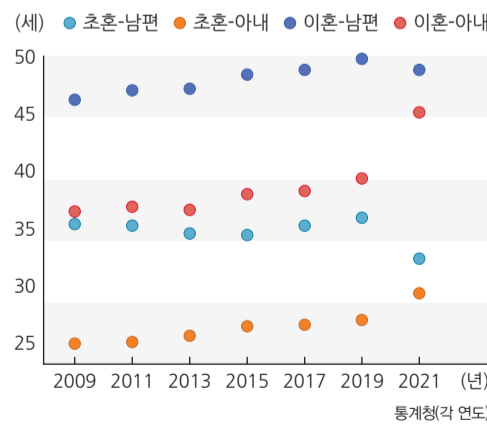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혼인(2019년)



다문화 가구의 혼인과 이혼(2019년)



다문화 가구의 초혼 연령과 이혼 연령



2019년 다문화 가구의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자의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남편이 17.2%, 귀화자는 13.5%였다. 전체 결혼 대비 다문화 결혼 비율이 15%를 넘는 시·군·구는 48개로 그 분포는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높은 지역과 유사하다.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다문화 결혼 건수가 많았으며, 제주(13.2%), 전남(11.8%), 충남(11.8%), 전북(11.2) 순으로 다문화 혼인 비율이 높았다.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의 초혼 연령은 28.4세로 국내 전체 아내의 초혼 연령인 30.6세보다

는 2.2세 낮지만, 지속적으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반대로 국내 전체보다 다문화 혼인의 초혼 연령이 높다. 다문화 혼인 중 남편의 국적별 비율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며 일본은 2009년에 비해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 중 아내의 국적별 비율은 베트남, 한국, 중국 순이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009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었으나, 2019년 현재는 베트남, 타이, 필리핀 순이다. 2019년 다문화 가구의 이혼은 외국인 아내가 47.1%, 귀화자가